

자동차



세계 시장 회복세 이어가지만, 국내 생산·수출 ↓

■ 세계 자동차시장은 코로나19 침체기를 지나 2023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생산 회복으로 출고 대기 수요가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국제 정세 불안 등 영향으로 작년 자동차 판매량 증가폭은 다소 작지만, 여전히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국의 물가 상승 완화와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세계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되어,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수요 자체는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값싼 전기차가 확대되면서 친환경차 수요와 전기차 둔화에 따른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면서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 하지만 이런 현상은 국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신차 출시 등으로 내수 판매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수출과 국내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현대차가 올해부터 북미 지역에서 현지 전기차 전용 공장 등으로 생산할 물량이 국내 수출 물량을 일부 대체하고, 재작년과 작년 높은 수출 실적에 따른 역(逆)기저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친환경차 해외 직접생산 전략과 트럼프의 보편적인 관세 부과 기조 등은 수출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이 수입차에 관세를 매기면 현대·기아차는 100만대(국내 생산)에 달하는 미국시장 수출을 줄이고 현지 생산을 확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 전기차 성장세가 더디어지면서 이차전지 시장 성장세도 약화될 전망입니다. 전기차용 이차전지는 중국의 공급 확대로 세계적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더불어 트럼프가 친환경 기조와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기를 공약한 바, 정책적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철강



수요부진, 中 저가물량, 美 보편관세... ‘업황 수축’

■ 국내 철강 수요는 세계 철강 수요 침체와 국내 건설·자동차 등 수요 부진으로 내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생산량은 감산으로 인해 작년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수출은 인도 및 신흥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소폭 증가하고, 수입은 내수 감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확대 등으로 소폭 감소하여, 수출 및 수입 모두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중국의 수출 확대에 따라 국내에 값싼 중국산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도 중국은 경기 부진을 이유로 한국에 저가의 철강재를 수출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 철강 수출의 70% 이상이 신흥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국가에서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재는 과거 반제품 등 범용재에서 최근 냉연도금류 등 고급재 위주로 발전하는 모양새입니다.

■ 트럼프는 취임 첫 날(1월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한 모든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포스코가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편관세를 도입하면 미국의 핵심 강재 수입국인 한국의 미국 수출은 감소될 것입니다.

미국의 수출 할당량(쿼터) 축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2018년 1기 트럼프 시절에도 미국은 철강을 국가안보 연관 물품으로 판단하고 한국의 철강 수입량 관세 면제 쿼터를 과거 수출량의 70%로 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한국산 강재 수입량은 가파르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

2025년 산업전망 기상도

맑음 매우 좋음	대체로 맑음 좋음	흐림 어려움	비 매우 어려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이차전지	바이오	석유화학
기계	섬유패션	건설	건설

연립뉴스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 참고자료

- [2025년 경제·산업 전망] / 산업연구원 KIET
- [2025년 산업 전망] /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2024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5년 전망] / KAMA